

## 武人政權과 寺院勢力

교 양 과 황 병 성  
전임강사

### I. 서 론

고려사회는 1170년(의종 24)의 무인궐기를 계기로 문신정권이 붕괴되고 무인집권체제로 전환되었다. 무인정권기는 문인집권이라는 정치변동에 그치지 않고 농장경영이 진전되고 전국규모의 민중항쟁이 전개되는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진전된 시기였다. 특히 종래 불교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敎宗勢力이 쇠퇴하고 禪宗이 중흥하는 사원계의 재편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런데 무인정권기의 사원연구는 주로 무인정권의 교종억압이나 선종과의 결속을 파악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sup>1)</sup> 이에 의하면 교종세력의 반무인 항쟁은 사원정계에 대한 무인정권의 침해에 대항하고 종래의 지지기반이었던 왕실 정점의 문신정권을 복구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무인정권은 교종세력을 억압하는 가운데 崔忠獻이 정권을 장악하는 무인정권 후기에는 선종세력과의 결속이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사실 교종은 왕실·문신정권의 사상적 지주로서 그로 인한 정치세속적인 성격때문에 왕실귀족불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더구나 교종세력은 무인궐기를 계기로 문신정권이 붕괴되어 그 지지기반이 상실되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선종은 신라후기 豪族과의 호혜적 관계와 같이 參禪을 위주로 하는 단순성·혁신성으로 인하여 무인정권과의 결속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풍은 불교계의 폐해를 통찰하는 자기혁신운동의 과정에서 진작되고 무인정권기같은 새로운 시대전환속에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사상체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사원세력의 동향도 무인정권의 확립과정과 유기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리라 본다. 불교가 국가적으로 신봉되고 왕실·무인집정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승병이라는 무력기반을 소유한 사원세력의 향배가 무인정권기의 권력구조에 미친 영향도 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인정권 초기에 있어서 교종세력의 반무인정권 경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도 유의해야

<sup>1)</sup> 金鍾國, "高麗武臣政權と僧徒の對立抗爭に關する一考察", 朝鮮學報, 제 21·22 합집 (1961).  
金塘澤, "高麗 崔氏武人政權과 修禪社", 歷史學研究, 제 X집 (1973).  
蔡尙植, "高麗後期 佛敎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敎育, 제 35 호 (1984).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제 36 호 (1973).

할 것 같다. 더구나 선종도 주로 최씨정권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있으나 무인궐기직후 선종계의 동향도 주목된다. 무인궐기는 표면상 무관들의 주도로 문신정권을 붕괴시킨 것이지만 고려사회의 제반모순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교종에서 선종으로의 이행이라는 사원계의 변질양상도 포괄되어 파악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인정권의 사원정책과 교종억압, 선종의 대두과정을 살펴보고 무인정권 후기에 일단락되는 사원세력의 재편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선종사상이나 최씨정권과의 결속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해도 좋을리라 본다.

## II. 武人政權 初期의 寺院動向

### 1. 李義方執權期的 僧徒抗爭

무인궐기는 사원세력의 지지기반인 왕권의 허구화와 문신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러나 무인들은 의종을 폐위시키고 많은 문신들을 제거했으나 사원세력을 탄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의종의 佛神政策에 사원계가 동원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주도한 榮儀·劉方義같은 衛士가 화를 당했을 뿐<sup>2)</sup> 사원세력이 탄압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무인정권의 성립직후 사원세력이 최초로 무인실력자간의 권력투쟁에 연루되는 것은 1171년(명종 1) 法雲寺와 開國寺의 승도인 修惠·玄素가 무인 李高와 제휴하여 이의방을 제거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사건이다.<sup>3)</sup> 당시 사원세력은 문신정권과의 기존관계로 보아 무인들의 정치권력 장악에 반발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사건은 일부의 승도가 무인간의 권력투쟁에 개입한 것일뿐 교종세력이 결집하여 문신정권을 복구하려는 반무인항쟁으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승도들의 가담동기도 “登峻班”이라는 권력지향적인 면모에서 발견되며 그것도 사원세력의 주도가 아니라 무인 이고와의 제휴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의방집권기의 사원동향은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1) 「宮闕 災 諸寺僧及府衛軍 詣闕 將救火 鄭仲夫·李俊儀·李義方等 恐有變 閉紫城門不納 殿宇悉火 王 出山呼亭 痛哭 ……」<sup>4)</sup>

(2) 「歸法寺僧百餘人 犯城北門 殺宣諭僧錄彥宜 義方率兵千餘 擊殺數十僧 餘皆散去 兵卒死 傷者 亦多 翌日 重光·弘護·歸法·弘化諸寺僧二千餘人 集城東門 門閉 乃燒城外人家 欲 延燒崇仁門 入殺義方兄弟 義方知之 徵集府兵逐之 斬僧百餘 府兵 亦多死者 令府兵 分守 城門 禁僧出入 義方 又遣府兵 毀重光·弘護·歸法·龍興·妙智·福興等寺 李俊儀止之

<sup>2)</sup> 高麗史, 제 128 권, 鄭仲夫列傳.

<sup>3)</sup> 상계서, 제 128 권, 李義方列傳.

<sup>4)</sup> 高麗史節要, 제 12 권, 明宗元年, 多 10 月條.

義方怒曰 若從爾言 事不成矣 遂焚之 取貨財器皿以歸 僧徒 要擊於路 還奪之 府兵 死者甚衆 俊儀 罵義方曰 汝有三大惡 …… 義方大怒 ……」<sup>5)</sup>

- (3) 「明宗十二年 冲曠死 王 恐后悲痛 不白 居數月 后聞之 意諸將害之 憤恚 得氣攻鬲病 時 神宗 封平諒公 亦患痔 久不入觀 后 疑神宗與曠同禍 王命腰輿入謁 后 且喜且泣曰 吾以爲死 不意復見爾面」<sup>6)</sup>

위의 사료(1)과 같이 鄭仲夫 등의 무인집정자들은 사원세력의 동향을 주시하고 반무인항쟁의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료(3)처럼 왕실과 사원세력의 제휴를 방지하기 위해 명종의 친제인 충희승통을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억압하고 있었다. 이같은 宗室僧의 견제는 무인정권 전후기를 막론한 현상이었다고 본다. 특히 사료(2)는 무인정권 성립이후 교종계 사원이<sup>7)</sup> 결집하여 전개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승도항쟁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의방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딸을 태자비로 책봉하려는데 촉발된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사료에서 그 발생요인은 이의방이 언급한 “事不成矣”에서 찾아지는데 여기에서의 일이란 태자비책봉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그가 승도항쟁을 진압한후 곧바로 태자비를 책봉하고<sup>8)</sup> 사료(4)와 같이 從軍僧들이 태자비의 축출을 요구한 사실에서도 짐작된다. 특히 宣諭僧錄 彥宣은 이의방집권기의 사원정책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 설치시기는 자세하지 않으나 그 말 뜻으로 보아 무인정권의 성립에 따른 사원세력의 동요를 막고 새로운 정치질서에 포괄하도록 선유하는 것이 주된 임의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그는 先覺國師塔碑文에 禪宗桐裏山派 제 2조인 道誥의 正孫으로 부기된 重大師 彥宣으로 파악된다.<sup>9)</sup> 이렇게 본다면 禪僧이 사원선유를 관장한데 따른 교종세력의 반발도 승도항쟁의 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처럼 1174년의 승도항쟁은 무인정권 초기의 유일한 조직적인 반이의방투쟁에 해당하였다. 이에 대한 이의방정권의 사원정책은 府兵을 동원하여 사찰을 파괴할 정도로 강경한 탄압을 기조로 하고 있었다. 사원세력이 무인정권 초기에 현실적으로 다시 항쟁을 전개하지 못한 것도 귀범사를 비롯한 교종세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의방의 그같은 정책은 사료(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준의등 일부 무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으며 그 자신의 몰락과 직결되었음은 다음의 사료가 알려준다.

- (4) 「尹麟瞻 帥諸將 治兵西郊 李義方 自納女東宮 益擅威福 濁亂朝政 衆心憤怨 義方 偶出宣義門外 鄭筠 密諭從軍僧宗昂等 託有求訴 隨義方後 伺隙斬之 分捕俊儀兄弟 及其黨高得元·柳允元等 皆殺之 王 慮軍中驚擾 遣庾應圭諭之 軍中 皆疑文臣 嗾僧徒爲變 欲殺麟瞻 應圭

<sup>5)</sup> 高麗史, 제 128 권, 李義方列傳.

<sup>6)</sup> 삼계서, 제 88 권, 后妃 1, 仁宗 恭睿太后任氏條.

<sup>7)</sup> 閔賢九, “전계논문”, pp.30~31.

<sup>8)</sup> 高麗史節要, 제 12 권, 明宗 4年 3月條.

<sup>9)</sup>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世中世下권, 아세아문화사, p.828 (1984).

遷告仲夫 遣人 諭其意 然後乃止 僧徒 以爲賊臣之女 不可以配東宮 奏戮義方女 遂聚普濟寺 不發」<sup>10)</sup>

위는 1174년(명종 4) 원수 윤인침의 지휘하에 西京留守 趙位寵의 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중부세력이 종군승을 이용하여 이의방을 제거한 내용이다. 이는 승도들이 이의방을 賊臣으로 규정하고 태자비의 축출을 요구한 사실로 보아 사료(2)에서 살펴본 승도항쟁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정중부도 “**濁亂朝政**”으로 표현된 이의방의 독주를 막고 무인집정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했으므로 반이의방세력인 사원세력과 결탁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사원세력의 항쟁은 정중부를 포함한 반무인정권의 목표에서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의방의 몰락도 그들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원세력의 반무인정권의식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본래 승병의 무력기반은 무인정권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방의 사원 탄압으로 재결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본다. 또한 무인정권 초기에 있어서 興王寺 등이 승도항쟁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인정권에 대한 각 사원의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반무인정권의 확대된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한 것은 이의방정권기에 있어서 승도항쟁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나 승도항쟁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정권에 대한 일방적 사원예속을 거부하는 무력시위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더구나 승도들이 정중부세력과 결탁하여 이의방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사원세력의 항배가 무인정권의 확립과정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 2. 初期 武人政權과 寺院勢力

정중부세력의 집권은 사원의 반이의방경향속에서 종군승들의 결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무인정권의 사원정책도 이의방집권기와는 다른 방향에서 모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5) 「(明宗)五年(鄭)仲夫 重修普濟寺 設落成會 請王臨幸 有司 諫止之 仲夫 陰令僧錄司 奏請親幸 仲夫 具盛饌以進 王 不欲從容留飲 乃命兩府宰樞承宣諸司侍臣 同時赴宴」<sup>11)</sup>

(6) 「明宗七年 興王寺僧上變告 僧統冲曠 潛結僧徒謀逆 鞠冲曠從者 無驗 釋之」<sup>12)</sup>

(7) 「重房 洸宗昂等十餘僧于海島 初宗昂等 與鄭筠 謀殺李義方 遂與筠親比 出入後庭無忌 及筠死 一時武臣 皆義方麾下 且以謂軍國權柄屬重房者 實由義方之力 遂流之」<sup>13)</sup>

사료(5)에서 명종이 普濟寺의 행차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아 정중부가 왕실보다 앞서서 보게

<sup>10)</sup> 高麗史節要, 제 12 권, 明宗 4 年 12 月條.

<sup>11)</sup> 高麗史, 제 128 권, 鄭仲夫列傳.

<sup>12)</sup> 高麗史節要, 제 12 권, 明宗 8 年 春正月條.

<sup>13)</sup> 삼계서, 제 12 권, 明宗 10 年 秋 10 月條.

사를 수리하고 승록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료(6)과 같이 흥왕사는 총회승통을 밀고할 정도로 무인정권과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사료(7)에서 이의방의 제거에 공을 세운 승도가 “親比”로 표현된 것과 같이 승병이라는 무력기반을 제공하여 정중부 세력을 구성하는 한 집단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들은 정중부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무인집정자인 慶大升에 의해 유배되지만 이를 사원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정중부의 세력기반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경대승·이의민정권기에도 정중부 정권과 같은 양자의 밀착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8) 「(崔)忠獻 以王子 僧小君 洪機·洪樞·洪規·洪鈞·洪覺·洪貽等 在內干政 奏還本寺 又黜嬰僧雲美·存道」<sup>14)</sup>

(9) 「又遣將卒 閉諸城門 召杜景升 流紫燕島 …… 及大禪師淵湛等十餘僧于嶺南 又配洪機等 小君十餘人于海島」<sup>15)</sup>

위의 사료는 1196년(명종 26) 최충헌이 이의민정권을 붕괴시킨후 폐승 雲美·存道를 축출하고 이듬해에 大禪師 연담등 10여승과 小君僧을 유배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승도들이 정치권에서 축출된 것은 이의민정권과 사원세력이 서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무인정권기에도 명목상 군주제가 유지되었고 불교신봉의 핵심인 왕실 불교적 성격은 그대로 견지되고 있었다. 명종때의 寺院幸行이나 대규모의 飯僧, 百座·仁王道場·장경회 개최 등은 전통적인 불교행사였다. 특히 무인정권하에서도 왕실의 불교신봉은 지극하여 종실승인 총회승통이 우대되고<sup>16)</sup> 사료(8)·(9)와 같이 소군승이나<sup>17)</sup> 폐승이 대두할 수 있었다. 이에 무인정권은 종실승을 견제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왕실과 사원의 유대관계는 반무인정권의 동향이 아닌한 허용되었으며 이는 사료(10)에서 최충헌이 지적한 것처럼 왕실이 三寶를 주관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겠다.

특히 무인정권 초기의 사원정책은 그 기초상 왕실과 마찬가지로 불교사상에 의존하고 사원세력과는 동반자의 관계에 있었다. 의종때에는 문신귀족이 주도적으로 국왕의 복을 비는 축회소로서 원당을 경영하고 있었다.<sup>18)</sup> 이와 마찬가지로 무인정권기에도 海安寺를 중방의 원당으로 삼았으며<sup>19)</sup> 이의민세력도 善達院을 원찰로 삼고 있었다.<sup>20)</sup> 이는 무인정권이 정치체속적인 불교신봉의 기초위에서 사원세력에 대한 회유정책을 실시케한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sup>14)</sup> 상계서, 제 13 권, 明宗 26 年 5 月 條.

<sup>15)</sup> 高麗史, 제 129 권, 崔忠獻列傳.

<sup>16)</sup> 상계서, 제 90 권, 宗室 1, 元敬國師 冲職條.

<sup>17)</sup> 상계서, 제 90 권, 宗室 1, 明宗條.

<sup>18)</sup> 高麗史節要, 제 11 권, 毅宗 19 年 3 月 辛酉條.

<sup>19)</sup> 高麗史, 제 20 권, 明宗 11 年 12 月 壬子條.

<sup>20)</sup> 상계서, 제 128 권, 李義政列傳.

따라서 이의 방정권을 제외한 무인정권 초기에는 사원세력과의 유대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인집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원세력의 향배가 변수로 작용하여 각 집정자들이 사원세력을 포섭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데 기인한다고 본다. 또한 사원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승도 단독의 반무인항쟁이 불가능했으므로 무인정권과의 연계를 통하여 그들의 현실적 지위를 유지해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무인간의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속에서 사원세력의 재편이 불가능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무인정권과 사원세력의 관계는 당시 정치권력구조의 재편속에서 이해되는 문제라고 본다. 사료(4)와 같이 사원세력은 이의방의 탄압을 받은 후에도 조위총의 정변을 진압하는 승군으로 증군하였으며 兵馬使가 민중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승병 모집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21)</sup> 이는 사원세력이 무인간의 권력투쟁에 가담하기도 했지만 민중항쟁에 있어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 Ⅲ. 武人政權 初期의 禪宗 壟頭

대각국사 의천이 죽은 후의 불교계는 다시 문벌귀족세력과 밀착된 화엄종과 법상종 등의 교종이 우위를 차지하였다.<sup>22)</sup> 교종의 통일적인 교리는 국왕 정점의 중앙집권체제에 적합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상체제로 인식되어 왕실에서 적극 신봉되었다. 물론 무인열기 이전과 비교하면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의 종세가 크게 약화된 것도 사실이지만<sup>23)</sup> 무인정권 초기에도 역시 선종보다 교종이 우세하였다고 본다. 명종은 즉위 곧바로 玄悟國師 宗璘에게 佐世의 호를 내리고 그를 왕실로 불러들여 백좌도량을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는 화엄종계의 승통으로 인종이 대각국사 의천의 후계자로 여긴 종실이였다.<sup>24)</sup> 또한 화엄종의 正覺僧統 靈炤도<sup>25)</sup> 명종초에 大內에서 華嚴經을 訓閱하고 靈通寺 주지로 있었다. 그는 大選都廳을 거쳐 1188년(명종 17)까지 32년간에 걸쳐 흥왕사 홍교원의 敎學으로 화엄경을 강론한 고승이었다. 그가 홍교원의 중수와 동시에<sup>26)</sup> 교학을 담당하고 왕명으로 開泰寺·海印寺에서 華嚴章疏를 강론한 것으로 보면 의종때이래 高弟門徒를 많이 배출한 화엄학의 대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영통사주지를 지낸 通炤僧統 智僞도 1190·1191년(명종 20·21)에 空門의 領袖·首座의 위치에서 백좌회와 대장도량을 주관하고 宗選을 관장하였다.<sup>27)</sup> 이렇게 무인정권 초기

<sup>21)</sup> 삼계서, 제 19권, 明宗 6年 3月 乙卯條.

<sup>22)</sup> 蔡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韓國史論, 제 5집 (1979).

<sup>23)</sup>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sup>24)</sup> 朝鮮總督府(편), 朝鮮金石總覽, 제 1권, 아세아문화사, p.406 (1976).

<sup>25)</sup> 李蘭暎, 韓國金石文道補, 아세아문화사, p.182 (1968).

<sup>26)</sup> 高麗史節要, 제 11권, 毅宗 10年 夏 4月條.

<sup>27)</sup> 許興植, 전계서, p.911 (1984).

에는 교종계 고승들이 왕실의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적 불교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는 고려왕실의 전통인 화엄종이 명종때에도 우위를 점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며 그 중심은 흥왕사와 영통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양 사원은 무인정권 초기에 반무인항쟁을 전개했다기 보다는 왕실·무인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이는 정각·통소승통의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인정권 초기에는 교종의 상위속에서 선풍이 진작되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대각국사의 교선통합운동으로 교종과 선종을 포괄하는 폭넓은 사상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구나 天台宗은 중국과는 달리 오히려 교종이라기 보다는 선종이라고 해도 무방한 사상체계인 것도 사실이다.<sup>28)</sup> 천태종계 圓覺國師 德素도 불교계의 師範으로서 명종이 “便恭致禮” 하는 위치에서 金經會를 主殿하여 禪風을 진작시킨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 같다.<sup>29)</sup> 더구나 천태종계인 圓妙國師 了世도 普照禪에서 天台教觀으로 사상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처음에 普照國師 知訥과 法友가 되어 선종교화를 도우기도 하였다.<sup>30)</sup> 물론 선종이 중흥할 수 있는 사상기반이나 조계종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는 것은 지눌(1158~1210)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으로 무인정권 초기에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한 선풍진작의 영향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도 종래 교종계에 투신하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종실인 安平公 璲이 “效禪僧作偈” 한 사실도 발견된다.<sup>31)</sup> 또한 사료(3)의 원경국사 총회승통은 1190년(명종 20)의 興教寺冲曠禪師碑片에 보이는 冲曠禪師와 동일인일 가능성도 크다.<sup>32)</sup> 아무래도 양인이 동시대인이고 총회가 종실승으로서의 종래부터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면 同名異人의 현상은 납득되지 않는다.<sup>33)</sup> 물론 승직임명이 국왕에게 귀속되고 승적을 관리하는 승록사제도속에서 승려가 임의대로 종파를 옮기는 어려웠겠지만 의천의 사후에 종파를 옮기는 불교계의 변화에 유의해야 된다고 본다.<sup>34)</sup> 그리고 도선과 탄연의 탐비문을 지은 문신 李之茂와 崔惟淸의<sup>35)</sup> 선종이해는 깊었을 것이며<sup>36)</sup> 문신가문의

<sup>28)</sup> 崔柄憲, “東洋佛敎史上的 韓國佛敎”, 韓國史市民講座, 제 4 집, p.39 (1989).

<sup>29)</sup> 許興植, 전계서, p.849 (1984).

<sup>30)</sup> 東文選, 제 117 권, 萬德山白蓮寺圓妙國師碑名.

「時曹溪牧牛子在公山會佛岬 聞風暗契 以偈寄師 勸令修禪云 波亂月難顯 室深燈更光 勸君整心器 勿顧甘露漿 師見而心愜 徑往從之 然爲法友 助揚道化 居數年 牧牛子移社於江南 師亦隨而南焉」

<sup>31)</sup> 高麗史節要, 제 12 권, 明宗 7 年 夏 4 月條.

<sup>32)</sup> 許興植, 전계서, pp.903~904 (1984).

<sup>33)</sup> 특히 흥교사는 화엄종계로 분류되는데(許興植, 전계서, 1986, p.205) 총회선사로 표기된 것도 그러한 점을 부각시켜 준다.

<sup>34)</sup> 許興植, 전계서, 제 中世上권, p.635 (1984).

「宗禪師入寂 門弟以身徇利 皆紛竟適他 唯師守正 不爲勢遷」

<sup>35)</sup> 同上, pp.820~829 (1984).

<sup>36)</sup> 高麗史, 제 99 권, 崔惟淸列傳에 최유청이 “불법을 몹시 좋아하여 날로 불경을 독송하니 이르는 곳마다 학생과 사문으로 질문하는 자가 모여들었다” 라는 내용이 보이며, 출가한 두 아들중 하나는 천태종 계임이 확인된다(許興植, 전계서, p.840).

“端座念佛誦經”의 경향도<sup>37)</sup> 찾아진다. 특히 보제사가 무인정권 초기에 부각된 사실도 선포진작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보제사는 명종이 즉위하여 최초로 행차하고<sup>38)</sup> 기우제를 지낸 사원이었다.<sup>39)</sup> 또한 사료(4)(5)와 같이 승병들이 보제사에 집결하여 태자비의 축출을 요구하고 정중부가 보제사를 중수하기도 하였다. 물론 의종도 자주 행차했던 것이지만 무인정권과 교종세력의 대립상황을 감안하고 그 곳에서 담선법회가 개최된 것등으로 미루어 선종계 사원으로서의<sup>40)</sup> 보제사가 명종때에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선종의 대두는 대체로 천태종의 분열이후 “遂以大振宗風 光揚祖道 中興東國之禪門”과 같이 속종이래 왕실측근으로서 인종의 정치자문을 담당한 曹溪宗 闍掘山派의 大監國師 탄연(1069~1159)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1)</sup>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인정권 초기에는 화엄종을 중심으로한 교종이 우세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인·의종때에 성사되지 못하고 1172년(명종 2)에 이르러 선각국사 도선과 대감국사 탄연의 탐비가 건립된 것은 선종중흥의 시대적 전환속에서 인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양인은 각각 동리산파·사굴산파로서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양 비문을 선종계의 普賢寺住持인 重大師 機俊이 글씨를 쓴 것처럼 선종체계에 서 이해됨은 물론이다. 더구나 탄연과 지눌은 계보상의 연결이 뚜렷하지 않으나 양인이 사굴산파임은 분명하므로<sup>42)</sup> 지눌의 선종중흥도 그같은 바탕위에서 가능했다고 본다. 이렇게 양 탐비가 그들이 죽은 후인 무인정권 초기에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건립된 것은 이들에 대한 공적이 재평가되고 선종사상이 왕실에서 적극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龍門寺重修碑文에는<sup>43)</sup> 九山門學徒의 담선법회와 아울러 “國朝多亂 大禪師發願 設三萬僧齋” “南方盜賊大起 設一萬僧齋 以救賊難焉”과 같이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승제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주도한 祖膺은 탄연과 함께 慧照國師의 法孫으로서<sup>44)</sup> 그의 활동을 통하여 선포진작의 실상이 짐작된다. 그리고 명종이 特加抄錄하고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참여한후 보조국사 지눌에게서 次決法要한 圓眞國師 承迥의 활동에서도<sup>45)</sup> 선종중흥의 단서가 찾아진다. 이는 도선이 고려의 후삼국

37) 許興植, 상계서, p.889.

특히 曹溪宗 2세인 眞覺國師 혜심은 처음 1201년(신종 4)에 최홍윤의 문하에서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후에 최홍윤은 혜심의 선문에 입문하여 그의 제자가 되는등 양인은 혜심이 “我昔居公門下 公今我社中 互爲寶主換作師寶”라고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東國李相國集, 제 35권, 曹溪山第二世故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銘). 그러나 위의 비문이 1186년(명종 16)에 이루어졌으므로 최홍윤의 선종이해는 혜심과 만나기 이전인 명종때로 판단된다.

38) 高麗史, 제 19권, 明宗 2年 11月 甲戌條.

39) 상계서, 제 19권, 明宗 3年 5月, 甲辰條.

40) 명종때 보제사에 있었던 선승들의 계보는 자세하지 않으나 1185년(명종 15)에 性印禪師 淵懿가 주지로 있었다(朝鮮總督府, 전계서, p.411).

41) 許興植, 전계서, pp.821~822 (1984).

42) 許興植, 전계서, pp.237~238 (1986).

43) 朝鮮總督府, 전계서, pp.408~411.

44) 許興植, 전계서, pp.237~238 (1986).

45) 許興植, 전계서, p.995 (1984).

「丁巳(명종 27) 春 例赴普濟寺談禪法會 …… 時明廟當宇素聞師之道行 及於抄選有司 有司特加抄錄 此不拘凡例也 …… 遂往參曹溪山普照國師 次決法要」

통일을 예언하고 새 왕조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것과 같이 무인정권기의 분열된 사회의식을 통합시키는 사상체계를 선종에서 모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것은 13세기 전반에 있어서 신비사조의 부활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하겠다.<sup>46)</sup>

이러한 선종의 대두는 인·의종때부터 비롯되지만 무인결기 이후의 정치변동 속에서 구체화 되어 갔으며 일부 선승들은 무인정권의 권력구조에 포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사료(2)에서 선유승록 언선을 선승으로 추측해 보았다. 그리고 사료(9)에서 최충헌에 의해 유배된 대선사 연담은 대감국사의 탐비를 세운 탄연의 문인으로 당시 삼중대사에 있었다.<sup>47)</sup> 그가 왕실이나 무인 두경승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최충헌에 의해 유배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sup>48)</sup> 이렇게 무인정권 초기에는 교종이 우위를 점했던 것이지만 사상적으로 교종이 위축하는 가운데 선종은 귀족불교적 한계를 인식하고 담선법회등을 통하여 자기혁신운동을 전개하면서<sup>49)</sup> 선풍을 진작시켜 나갔다고 하겠다. 여기에 선종이 최씨정권기에 사상적 주류를 형성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武人政權 後期の 僧徒抗爭

무인정권은 1196년(명종 26) 최충헌의 정변을 계기로 최씨 4대에 걸친 후기 집정기로 진전되었다. 그 정변은 최충헌을 정점으로한 권력구조의 변동만이 아니라 사원세력의 재편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정변직후 吉仁이 왕륜사승을 거느리고 거사하려 한다는 무고사건에서<sup>50)</sup> 짐작되듯이 사원세력은 중요하고 있었고 최씨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도 사원세력의 재편은 불가피했던 것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은 최충헌의 사원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10) 「今一二浮圖 山人也 常徘徊王宮 而入臥內 陛下惑佛 每優容之 浮圖者 既冒寵 屢以事干穢聖德 而陛下勅內臣 勾當三寶 以穀取息於民 其弊不細 惟陛下斥群髡 使不跡于宮 毋得息穀」<sup>51)</sup>

(11) 「在祖聖代 必以山川順逆 創浮圖祠 隨地以安 後代將相群臣 無賴僧尼等 無問山川吉凶

<sup>46)</sup> 許興植, 전개서, pp.436~462 (1986).

<sup>47)</sup> 許興植, 전개서, p.823 (1984).

<sup>48)</sup> 대선사 연담을 비롯한 선승들이 교종세력의 반무인항쟁에 참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이의방집권기는 예외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종세력도 무인정권과 현상 유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며 그 재편은 최충헌때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담은 선종의 대두과정에서 정치권에 밀착되다가 반최충헌세력으로 규정되어 유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sup>49)</sup> 선승들은 名利를 쫓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지눌이 경계결사문에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자기혁신을 도모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겠다.

<sup>50)</sup> 高麗史, 제 129 권, 崔忠獻列傳.

<sup>51)</sup> 同上.

營立佛宇 名爲顯堂 損傷地脈 災變屢作 惟陛下 使陰陽官檢討 凡禱補外 輒削去勿留 無爲後人觀望」<sup>52)</sup>

위의 사료는 최충헌이 명종에게 제시한 奉仕 10 條중 사원에 관련된 일부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는 왕실과 무인집정의 비호아래 야기된 승도들의 폐해와 원당의 난립을 비판하였다. 물론 그의 사원정책은 사료(8)과 같이 소군승이 내정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本寺로 돌려보낸 것에 그쳤던 것이지만 그 여파는 컸을 것이며 결국 다음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사원재편이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른다.

(12) 「(崔)忠獻 欲往興王寺 慶成佛像 有人 投匿名書云 興王寺僧統寧一 與中書令杜景升 謀害忠獻 乃止」<sup>53)</sup>

위에서 최충헌이 흥왕사에 가려한 의도는 “慶成佛像”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무인정권 초기에 개경내 중심사원의 하나였던 흥왕사를 신질서에 포괄시키려고 꾀한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흥왕사주지 요일이 두경승과 더불어 최충헌을 제거하려 했는지도 자세하지 않으나 이를 통하여 사원세력이 최충헌보다는 두경승등 초기 집정자들과 밀착되어 있었음이 짐작되며 사료(10), (11)의 사원비판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로써 사료(9)와 같이 연담과 소군승들이 두경승을 비롯한 문무관과 함께 유배되고 명종도 폐위되기에 이르른다. 이는 명종폐위라는 구도아래 초기 무인정권과 밀착된 교종세력을 재편하여 최씨정권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때 연담 등의 선승들이 축출된 것도 사실이지만<sup>54)</sup> 그의 정책은 선종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교종보다 선종을 후원하는 사원재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5)</sup> 더구나 1198년(신종 1)에 설치한 山川禪補都監은 國基延長을 위한<sup>56)</sup> 전통적인 방책으로 보이지만 사료(10), (11)의 정책을 실제 추진시키는 사원세력의 재편을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최충헌의 사원재편정책은 실상 교종세력에 대한 억압이었기 때문에 반최충헌의 승도 항쟁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먼저 교종세력의 반최충헌항쟁은 부석사·부인사등 화엄종계 지방사원에서 전개되었다.<sup>57)</sup> 그리고 1209년(희종 5)에는 教政都監의 설치계기가 된 靑郊驛吏의 모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귀법사승의 밀고로 실패로 끝났지만<sup>58)</sup> 사원승도의 반최

<sup>52)</sup> 同上.

<sup>53)</sup> 同上.

<sup>54)</sup>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p.235 (1987)은 이를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장애물로 등강하여 선승을 유배하였다고 보았다.

<sup>55)</sup> 蔡尙植, “전계논문”, pp.105~106 (1984).

<sup>56)</sup> 高麗史節要, 제 14 권, 神宗元年 春正月條.

<sup>57)</sup> 상계서, 제 14 권, 神宗 6年 9月條.

「崔匡義馳奏 興州浮石·符仁等寺 及松生縣雙巖寺僧徒謀亂 命兵馬使 推鞠配島」

<sup>58)</sup> 高麗史, 제 129 권, 崔忠獻列傳.

「初靑郊驛吏三人 謀殺忠獻父子 詐爲公牒 召募諸寺僧徒 牒至歸法寺 僧執實蹟者 告忠獻 卽置教定別監于迎恩館 閉城門 大索其黨 靑郊人 誣構右僕射韓琦 忠獻殺琦及三子 又殺將軍金南寶等九人 分配從者于遠島」

최충헌항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다고 본다. 또한 內侍郎中 王濬明 등이 주도한 최충헌의 제거 시도에서도 승도의 승도들이 전위역할을 담당했으나 실패하여 회종도 폐위되었다.<sup>59)</sup> 특히 1217년(고종 4)에는 승도항쟁이 전개되는데, 다음의 사료와 같다.

(13) 「興王·弘圓·景福·王輪·安養·修理等寺僧之從軍者 謀殺忠獻 佯若奔潰者 曉至宜義門 急呼曰 契丹兵 已至矣 門者 拒不納 僧徒鼓噪 斬關而入 殺門者五六人 有郎將金德明 嘗以陰陽之說 媚忠獻 官至知太史局事 所進新曆 皆變舊法 日官及臺諫 心知其非 畏忠獻 莫敢言者 又數興工役 侵耗諸寺 故僧徒怨之 先毀其家 然後 向忠獻家 纒至市街 爲巡檢軍所逐 奔至新倉館與戰 忠獻 遣家兵 挾擊之 僧魁 中流矢仆 其徒奔 至宜義門 懸門下不得出 遂皆散走 忠獻軍 追斬三百餘僧 擒其黨鞠之 辭連中軍元帥鄭叔瞻 明日 忠獻 閉城門 大索僧之逃者 皆殺之 會大雨 流血成川 又斬僧三百餘人於南溪川邊 前後所斬 幾八百餘 積屍如山 人不得過者數月」<sup>60)</sup>

위의 사료와 같이 무인정권이 자주 요역을 일으켜 사원을 침해한 현실적 이해관계가 승도항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sup>61)</sup> 특히 사료(10),(11)에서 제시된 사원의 증설과 이식행위 금지가 최충헌에 의해 실행되었다면 이로 인한 양자의 대립도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sup>62)</sup> 이처럼 승도들은 거란병을 퇴치하기 위해 증군하는 것을 이용하여 반최충헌항쟁을 전개하였다. 홍왕사 등은 무인정권 초기에 탄압받지 않은 교종세력이었다. 이는 교종역압을 기조로 하는 최충헌의 사원재편정책에 반발한 교종세력의 항쟁으로서 여기에서 무인정권 초기와는 달리 홍왕사가 반최충헌항쟁을 주도하는 배경이 찾아진다. 이는 이의방정권기의 1 차에 이은 무인정권기에 있어서 최대규모의 제 2 차 승도항쟁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교종세력은 이의방정권기후 무인정권과 밀착관계를 유지하다가 최충헌집권기에 최대의 타격을 받아 정치권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선종은 사상계의 우위를 확보하고 선교통합운동을 주도하게 되며 정치적으로는 최씨정권과의 결속이 구체화되었다고 하겠다.<sup>63)</sup> 앞에서 소개한 논문들은 주로 무인정권 초기보다는 이를 다룬 것이므로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지눌에서 혜심으로 이어지는 그 실상은 당시에 “五教來參 熏染般若 列岳躬趨 痛求入社 王公遙揖 謂若親炙”으로 격찬되고 있었으며<sup>64)</sup> 수

<sup>59)</sup> 同上.

<sup>60)</sup> 同上.

<sup>61)</sup> 이 사건은 그 招辭가 최이의 장인인 원수 정숙첨에게 관련되어 유배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승도들과 함께 최충헌을 제거하려한 것이 아니라 증군승도들이 포함된 軍中에서 “崔忠獻 斲喪王室 自招寇賊 而反遣我禦賊耶”라는 최충헌비판이 문제된 것으로 파악된다(高麗史節要, 제 15 권, 高宗 4年 春正月條).

<sup>62)</sup> 金種國, “진계논문”, pp.567~589.

<sup>63)</sup> 이러한 최씨정권과 선종의 결속은 당시에 최충헌이 선종을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대선사 靜覺國師 志謙을 왕사로 삼은 것등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혜심은 최이에게 선의 원리를 교설해 주는 승려인 동시에 그의 정치를 뒷받침하는 불교계의 주요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다(閱賢九, “진계논문”, pp.32~34).

<sup>64)</sup> 東文選, 제 118 권, 曹溪山第二世斷俗寺住持修禪社主贈諡眞覺國師碑名.

선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하겠다.<sup>65)</sup>

## V. 결 론

본고에서는 주로 무인정권 초기의 사원동향과 선종대두를 고찰하고 최씨정권기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미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최씨정권과 선종의 결속이나 선종중흥 등은 밝혀졌기 때문이다.

1170년의 무인결기는 교종에서 선종으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사원세력은 무인정권의 성립으로 종래의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반무인항쟁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무인정권이 사원세력의 반발을 선유하고 종실승을 견제하면서 승도항쟁을 철저히 진압한 것들은 사원계의 반무인경향을 시사해준다. 이로써 이의방집권기의 승도항쟁은 개경을 중심으로한 교종세력이 주도한 것으로서 이의방이 그의 딸을 태자비로 책봉하려는 것에 촉발된 최초의 조직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의 승도항쟁은 왕실의 허구화를 가져온 무인정권의 실체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여 반무인정권이라는 보다 확대된 방향에서 전개하지 못하고 반이의방항쟁에 국한된 한계가 지적된다. 이는 승도들이 이의방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중부세력의 반이의방경향을 이용하고 무인정권의 경계가 강화된 개경에서 일으킨 조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의방의 정책은 사원세력의 반이의방화를 촉진시켜 결국 그의 정권이 붕괴되었던 것은 사원세력이 무인집정의 확립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방의 몰락이후에는 양자간에 대립보다는 현실유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인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각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사원세력이 종군승으로 참여하는 등 지지세력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그들이 무인간의 권력투쟁에 변수로 작용하는 등 반무인정권이 아닌 사원세력이 소유한 현실적 지위를 그대로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무인정권이 불교신봉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던 것은 아니므로 승도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했으며 그것이 무인집정의 교체속에서 경대승과 최충현에 의한 승도축출로 발전했다고 하겠다. 또한 무인정치에 대한 사원세력의 반발은 충분히 납득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무력기반등이 열세에 있었으므로 다시 항쟁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종래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무인정권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명종도 불신을 흑신했던 것처럼 의종대와 같은 정치세속적인 불교양상이 청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세력에 대한 재편도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것이 최충현의 사원비판과 선종 위주의 사원재편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러한 사원세력의 동향은 기본적으로 농민·천민의 항쟁과는 그 성격이 다른 무인

<sup>65)</sup>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の 結社運動”, 韓國學報, 제 36 집 (1984).

결기 이후 권력구조의 재편에서 이해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무인정권 초기는 교종에서 선종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는 과도기 현상속에서 교종이 우세한 형편에 있었으나 점차 선종중흥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탄연으로 비롯되지만 무인정권기같은 혼란기에 선승들이 불교계의 정치세속적인 폐단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자기혁신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선종이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는 사상체계로서 왕실과 무인정권에서도 인식되어 갔다고 하겠다. 무인정권 초기에 도선과 탄연의 탐비가 국가적으로 건립되고 “國朝多亂”의 진정이나 “救賊難”을 위한 선승들의 활동은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된다. 무인정권과 선종의 결속배경에는 선종의 단순성에서도 찾아지지만 불교계의 폐해를 타파하려는 혁신성과 아울러 사회혼란의 증식을 모색하는 사상체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종의 정치사회적 기능은 무인정권 후기에 강화되었던 것이며 그것은 신비사조의 부활과 관련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에 최씨정권기 교종세력의 항쟁이나 교종억압속에서 무인정권과 선종세력이 결속하고 지눌로 대표되는 조계종 확립의 기반이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들의 계보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무인정권 초기에는 탄연의 문인들인 사굴산파가 주도했으며 후기에도 지눌이 역시 같은 계열이므로 동일하다고 본다. 그리고 무인정권기 선풍진작은 범교파적인 영향을 끼쳤음도 유의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1987)
2.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제 36 호 (1973)
3.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동문선 (1982)
4. 朴龍雲, 高麗時代史, 제하권, 일지사(1987)
5. 아세아문화사 편, 高麗史 (1972)
6. 아세아문화사 편, 高麗史節要 (1973)
7. 李蘭映, 韓國金石文追補, 아세아문화사 (1968)
8. 朝鮮總督府 편, 朝鮮金石總覽, 제 1권, 아세아문화사 (1976)
9. 秦星圭, “高麗後期 修禪社의 結社運動”, 韓國學報, 제 36 집 (1984)
10. 蔡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韓國史論, 제 5 집 (1979)
11. 蔡尙植, “高麗後期 佛教史의 전개양상과 그 경향”, 歷史教育, 제 35 집 (1984)
12. 崔柄憲, “東洋佛教史上的 韓國佛教”, 韓國史市民講座, 제 4 집 (1989)
13.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 (1984)
14.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일조각 (1986)

**The Power of Buddhist Temples  
and Koryo Military Reigns**

**Hwang Byeong-Seong**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tendency of the power of Buddhist Temples in the Days of Koryo (高麗) Military reigns.

The Military Revolt (1170)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Koryo society.

The monks' Revolts during the Reigns of the Military Government was an anti-Military riot by the power of Kyo sect (教宗). Consequently, the Military Government oppressed the Kyo sect. The social developments in the early Koryo dynasty are one of great importances that Kyo sect had broken down and was being replaced by Zen sect (禪宗). In this the monk Chinul (知訥) was particularly active. And it is notable that Chogye-jong (曹溪宗) was the revitalized Zen sect by Chinul.